

李光洙氏와 交談錄

李 「글세요, 지금도 東亞日報社에 와서 과거의 신문 장을 뒤져보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신문에나 내 쓴 글이 아니 실린 날이 거지 반 업소이다 그러. 참 속뜬(금석: 지금과 옛적)의 感이 있다고 할는지 감개무량하다고 할는지요, 정으로는 東亞를 참아 못 떠나겠지만. 도리켜 생각하면 東亞는 柱礎(주초)도 잡히고, 완성하여가는 도중에 있는 公器니까, 나의 조그마한 힘이 아니라도 넉넉이하여 나갈 줄 아나 朝鮮은 아직 창업 초에 잇서 힘과 정성을 다할 곳일 것 같하여 가기로 하였습니다. 더구나 사장 方應謨(방응모)氏라거나, 편집국장 朱耀翰君(주요한군) 그밖에 여러 동지의 관계로 보아 朝鮮으로 아니갈 수 업서 그러한 것입니다.

李 「건강이 허락한다면, 그러나 이렇게 늘 알코 잇스니 마음뿐이지요..」

李 「그것이 내가 열한 살 되든 해 8월이지요. 한 열흘 좌우 두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急病으로 도라가셨서요, 그때 자녀라고는 나와 내 누이동생 그리고 젓먹이 어린애와- 그래서 나는 全州(전주) 李氏家門의 장손이지만 부모를 묘소에 모신 뒤 도라와서 곳 사당에 불을 노아 홍패장(붉은색 합격증, 조선시대 문과나 무과 시험에 급제한 사람에게 발급된 붉은색 합격증서)도 文籍(문적: 일정한 목적, 내용, 체제에 맞추어 사상)도 位牌(위패)도 다 태워 버렸지요. 어린 생각에 이제는 부모도 다 도라가셨스니 고향을 떠나버리자, 자식들이 떠나가면 누가 잇서 부모 제사 드리랴, 일즉 생전에 積德(적덕: 덕을 많이 베풀어 쌓음, 또는 그런 덕행)도 못하여, 동리 사람들이 봉제사 하여 줄 이도 업스니, ऐיק 다 업새여 버린다고 태워 버렸지요.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도 하였습니다, 이제는 科擧制度(과거제도)도 업서져서 神主를 위하여 家名도 날니지 못할 터바에 사당은 작고 두어 무얼하는가고-

그러고는 우리 조부가 小室(소실: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)을 하여 가지고 사시는데 그리로 가 잇섯지요, 그러나 역시 마음이 붓지 안코 압날이 각갑하여 서울 갈 생각을 품고 조부압헤 가서 <58>

서울 가겠습시다.

서울 가서는 무얼하겠느냐.

요새 무슨 일이 잇다하니 가서 공부도 하고 지내겠습시다.

이래서 그날 밤에 고향을 떠나 진남포를 거쳐 仁川 지나 서울로 올너왔지요, 그때 路需(노수: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)는 도라가신 어머니가 내가 장가들 때에 주신다고 세목 두 필, 명주 세 필, 언목 한 필을 두고 간 것이 잇섯는데 그것을 내어다가 팔엇지요, 일흔 냥에 즉 7원을 밧엇지요, 이것이 내가 밧은 부모의 유산 전부여요.

우리 집은 원래 내가 다섯 살 되기까지는 잘 사랏스나, 점점 家運이 기우러져서 그 뒤에는 훨씬 가난하게 생장하였서요, 어릴 때에 그와집에서 초가집으로, 큰집에서 오막사리로 세 번채나 이사하든 기억이 지금 납니다, 그래서 나는 7, 8세 때부터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, 신도 삼엇지요.

李 「어린애는 죽고, 내 누이동생은 滿洲營口(만주영가)땅으로 시집가서 살지요, 몇해 전에 고향이라고 차저가니 집은 다 헐니어 형체도 업더군요, 다만 우리 遠近親戚(원근친척)되는 全州 李氏만이 만히 살고 잇섯지만, 고향은 定州郡(정주읍)에서도 남방으로 약 40리 드러가는 산골에 잇답니다..」

李 「장사를 하여보았지요, 그때 「히-로-」라는 卷煙草(궐련초)가 잇섯습시다, 동리사람이 돈 3원을 불상하라고 주길내 그것을 미천 삼어가지고 이 「담배장사」를 하엿답니다, 그것이 한 곱에 2원 40錢을 주고 사서는 등에 질머지고 도라다니며 한 통 한 통 다 팔고 나면 한 1원 이

익이 나뭇요, 그것도 담배를 가튼 定州郡에서 사오면 利가 薄(얇다, 적다, 야박하다)하여지니까, 새벽 일찍이 동트기와 가치 조반을 하여먹고 미천 돈을 꾸리어 가지고는 平壤(평양)으로 내려 갑니다, 그래서 늘 평양서 한 꼭씩 사서 질머지고는 다시 定州로 가서 팔었는데, 그것을 엇더케 부즈런하게 하였든지 나중에는 돈이 수중에 모다 20여원 모여졌습데다. 그것이 뒷날, 서울 가고, 東京가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.

李 「그것이 열 아홉 살 때 었지요, 그 해가 庚戌(경무)年인데 나는 東京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돌연히 조부가 병이 급하니 어서 나오라 하여서 나왔지요. 그 뒤 일개월이 다 못가서 祖父는 별세하였스니, 東京으로 더 갈수 업서서 五山學校 일을 보게 되었지요, 그때는 全身이 오직 「理想(이상)と野心に 燃える若き少年(이상과 야심에 불타는 젊은 소년)」이 되어서 교육에 全身力을 다하였습니다, 참으로 五山學校時代는 나의 일생 중 가장 로맨틱하고, 가장 「思ひ出深き(깊은 생각)」한 곳이었습니다, 그때 학교에서 글 배우든 이로 知名의 人士가 만히 낫섯는데 가령 醫專(의전)의 白麟濟 博士 金興濟(백인제 선생 김여제 선생), 徐椿(서춘), 岸曙(안서) 徽文高普(휘문고보)의 金道泰君(김도태군) 等(등)이 모다 그때의 사람들이었지요.

李 「4년 동안을..」

李 「그러타고 할 만치 이상이 갑습니다..」

李 「西伯利亞로 갔지요, 나는 원래 방랑하기를 조와해요, 소년시대에 廣漠(광막: 넓고 아득함)한 西伯利亞 별판을 도라 다니든 인상이 정말 진정으로 이질 수가 업서요, 먼-지평선에서 해가 소사 다시, 먼- 지평선 속에 사라지며 白樺(백화)나무가 꺾이는 별판을 덮흔 涯しなき(애뜻함) 西伯利亞를 오늘은 東으로 내일은 西으로 하고 흘러다니든 생각! 아름다운 꿈 갖지 늘 내 기억을 흔듭니다, 그러다가 결국「치따」에 가서 正教會(정교회)에서 발행하는 正教報의 主筆(주필: 신문사, 잡지사 등의 기자 중에서 수석인 사람)로 잇스면서 몇 해를 지냈지요..」

李 「치따에 간 뒤로는 그러케 고생은 업섯습니다. 그리고 吉林省(길림성) 穆陵(목릉)에 갔을 때에 병석에 계신 李甲 氏를 만나 몇 달을 모시고 잇섯지요..」

李 「米國가려고, 米國가서 공부하려고..」 그때 소문에 米國은 文明했고 자유의 나라고, 또 돈 업시도 공부할 수 잇다기에 米國行을 열망하여, 五山學校도 나오고, 西伯利亞도 지나 도라다 냈지요..」

李 「글세요, 전체가 渾然(혼연: 탄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고 고른 모양)하게 조흔 것은 어느 것일지 모르겟스나, 대체로 일부분 일부분식 조타고 생각되는 것은 잇서요, 가령 「흙」속에도 어느 일부분과 再生(재생)이나 開拓者(개척자)에도 어느 일부분이 靚찬쿠나 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잇서요..」

李 「역시 露西亞(노서아: 러시아)의 톨스토이 것이올시다, 杜翁(두옹: ‘톨스토이’의 음역어) 作品은 20年來 늘 읽어 옵니다, 이뻐게 露西亞 作家의 것으로는 꼴-키-, 푸-시킨 것도 조와해요, 그리고 트루게넵흐의 작품도 거지 반 다 보았는데 펍 아름다워요, 그러나 엇전지 그 사람 것은 有閑階級(유한계급)的 藝術(예술)이라는 寗김이 나요, 이를터이면 화려하게 장식하여 노은 서재에서 「하마끼」나 태이면서 읽을 예술인줄 알아요, 최근 것으로는 「하-딕-」도 조와요, 하-딕의 「테스」는 과연 조트군요, 日本人의 것으로는 夏目漱石(하목수석)과 國木田獨步(국목전독보)의 작품인데 지금도 夏目 것은 그러케 再讀(재독)하고 십지 안으나 國木田獨步의 예술

만은 늘 보고 싶어요, 슬허하는 작가 그는 빠나드, 쇼-의 것!

李 「아녀요, 그것은 徐椿?君(서춘?군)이 당한 일이라나 보지요..」

李 「다 업는 사실이에요, 다만 그런 사실이 잇섯스면 조왓겿구나 하는 생각에서 쓴 것이지요. 獨逸潛航艇이 무슨 潛航艇임니까, 上野公園은 또 무슨 上野公園이고, 다 거짓말이에요, 呵呵.

李 「그것은 자기가 공연히 金一蓮이로라 하고 자처하고 다니며 그리는 것이지요..」

李 「그야 내 죄가 아니겿지요, 하하」

李 「나는 일부러 동무를 사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, 또 사귄 동무도 엇더케 하면 오래 交誼(교의: 사귀어 친하여진 정)하여 나가는 법을 모릅니다, 가령 누가 當故(당고: 부모의 상사를 당함)하였다고 하여도 처저 갈 줄이나, 누가 결혼한다 할지라도 축전 칠 줄이나 그리고 누구를 방문다닐 줄도 모릅니다, 그것은 동무에 대한 내 정성도 부족한 탓이겿지만 원체 건강이 업서서, 부즈런히 차저갈 건강이 업서서요, 그리고 우리는 淸濁并呑式(청탁병함식: 맑음과 흐림을 아울러 포함하는 방식)의 성격을 못 가지고 잇습니다, 그러타고, 내 자신이 많다는 뜻은 아니외다 만은,

그래서 친구를 몹시 그리워하며 심중으로는 존경하면서도 그를 표현 할 줄을 모릅니다,

李 「퍽 갓갑게 밋고 지내는 벗은 여러분이 잇습니다..」

李 「덧기는 퍽으나 조와하지만 할 줄은 몰나요, 풍금으로 讚美歌(찬미가) 정도는 갓금 치지요.

李 「조와는 하면서도 내 손으로 화초를 심을 줄은 몰나요, 책상에 꽃을 꽂는다든지, 화분을 마루에 놓는다든지 다 몰나요, 日本 사람 집에 가면 「床の間(とこのま: 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)」에 청초한 분재 가튼 것을 노흔 것이 퍽으나 썰.름답게 생각되면서, 이내 내 자신은 실행하여 본 적이 업서요,

李 「테니스도, 뽀스뽀도 아모 것도 할 줄 몰나요, 대체로 화초를 사랑한다든지, 운동을 즐긴다든지 음악을 조와한다든지 하는 것이 모다 생활이 餘裕(여유)한 집안에서 태어나고서 할 말이 지요. 우리가치 어릴 때부터 貧寒(빈한: 가난하고 쓸쓸함)과 고독으로 자라난 자에게 무슨 꽃이요, 노래요 하고 취미를 길너 가질 사이 잇섯겿습니까.

李 「방랑이지요,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, 아모 근심업시 작고 작고 도라 다니는 것이 조와요. 원래 나에게는 放浪性의 피가 흘너 잇는가봐요, 이번에도 滿洲로 도라다니며 왔는데, 그 인적 업는 너르나 너른 曠野(광야)로 작고 작고 도라다녔스면 얼마나 조흔는지 몰낫겿서요..」

(次號에는 政客이요 文人이신 碧初 洪命憲 氏와의 交談錄이 실니겿습니다)